

『대반열반경집해(大般涅槃經集解)』에 나타난 『열반경』의 과문(科文)에 대하여*

하유진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
hafranciszen@hotmail.com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열반경』에 대한 남북조 시기 중국불교학자들의 과문 |
| II. 중국불교 초기의 과문의 형태: 도생(道生)의 『법화경소(法花經疏)』와 법운(法雲)의 『법화외기(法華義記)』의 경우 | V. 「장수품」 계송에 의한 『대반열반경』의 과문 |
| III. 『대반열반경집해』에 등장하는 열반학자들의 과문 | VI. 마치는 글 |

요약문

과문은 불교의 주석적 전통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문헌 분석 방법론으로, 경론의 해석을 위하여 경론의 구조를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전 해석에 있어서 과문은 경의 핵심인 중요(宗要)를 탐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교경전에 대한 과문은 중국인들의 경전에 대한 독창적인 이해와 해석을 나타내 준다. 중국 최초의 주석서들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열반경』에 대한 중국의 과문의 최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반열반경집해』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불교 초기의 『열반경』에 대한 과문의 여러 형식들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집해』 이후 『열반경』과 관련된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M0046).

주목할 만한 자료들, 예컨대 세친(世親)의 『열반론(涅槃論)』, 장안(章安)의 『대반열반경소(大般涅槃經疏)』에 나타난 하서도랑(河西道朗)과 흥황사법랑(興皇寺法朗)의 과문 등을 『집해』의 과문과 함께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반열반경집해』에 나타난 『열반경』에 대한 여러 주석가들의 과문에서 주목할 점은 「장수품」의 계송이 과문을 나누는 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열반경』에 대한 초기의 과문은 「장수품」의 계송에 따라서 형성된 측면이 있다. 『열반경』은 「장수품」의 云何偈를 통해서 가섭보살이 여래에게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한 대답이 각 품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반경』의 이러한 구성은 중국 초기불교 시대의 『열반경』 주석가들의 과문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으며, 『열반경』에 대한 주석가들의 이해의 정도를 알려준다.

주제어

과문(科文),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대반열반경집해(大般涅槃經集解)』, 「장수품(長壽品)」, 『열반론(涅槃論)』, 열반학.

I. 들어가는 말

과문(科文)이란 경론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실행되면서 불교의 학문전통의 전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과문은 불교의 주석적 전통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문헌 분석 방법론으로서, 경론의 해석을 위하여 경론의 구조를 장절(章節)로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¹⁾ 이와 같이 문헌을 구조적으로 나누고 분석하는 행위 자체를 과판(科判)이라고 하며, 과문의 과판에 의해 나누어진 단락을 과단(科段)이라고 한다. 과단은 형식면에서 단락의 구분이 선명하고 내용면에서 맥락과 조리가 있어야 한다.

경전이 중국에 유입되던 초기에는 경전 원문의 정확한 번역과 이해가 우선적인 당면과제였기 때문에 주석에 앞서 경전에 대한 일반적 소개와 칭찬의 글이

1) 조은수, 「동아시아 불교의 과문 전통과 그 의의」,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불교의 문헌해석학과 과문의 전통』(불교학연구회, 2014).

라고 할 수 있는 서문이 먼저 지어졌다. 번역된 경전에 대한 서문이 지어진 뒤에 주석 작업이 뒤따르게 되는데, 경전에 대한 중국불교 최초의 주석가들을 꼽자면 대표적으로 도안, 구마라집, 승조, 도생(355?-434) 등이 있다. 경전의 구와 문을 따라가며 부분부분 주석을 다는 형태로는 구마라집, 승조, 도생 등의 『주유마힐경(註維摩詰經)』을 꼽을 수 있으며,²⁾ 뒤이어 『법화경』에 대한 중국 최초의 주석인 도생의 『법화경소(法花經疏)』, 남본 『대반열반경』에 대한 주석집인 『대반열반경집해(大般涅槃經集解)』(509년 편찬)가 차례로 등장한다.

불교경전에 대한 과문은 중국인들의 경전에 대한 독창적인 이해와 해석을 나타내 준다. 경전 해석에 있어서 과문은 경의 핵심인 중요(宗要)를 탐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진시대부터 유송(劉宋, 420-479) 초기에 걸쳐 중국에서 불전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각 경전들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전체를 통일된 체계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교판(敎判)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경전의 핵심교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컨대 도생은 『법화경소』의 서문에서 중요를 제시한 뒤, 본문 해석에서는 중요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과문을 세웠다. 초기 경전의 분과의 양상에는 경문 가운데에서 사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그 요점을 기준으로 나눈 경우와, 경문의 자구를 따라서 그것을 축차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전자가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 그 중요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경전 구성을 밝히고 강경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자가 과문 성립의 유력한 요인이었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중국 초기의 주석서들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열반경』에 대한 중국의 과문의 최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반열반경집해』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불교 초기의 『열반경』에 대한 과문의 여러 형식들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대반열반경집해』 이후 『열반경』의 과문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자료들, 예컨대 세친(世親)의 『열반론(涅槃論)』, 장안(章安)의 『대반열반경소(大般涅槃經疏)』에 나타난 하서도랑(河西道朗)과 흥황사법랑(興皇寺法朗)의 과문 등을 『집해』의 과문과 함께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반열반경집해』에 나타난 『열반경』에 대한 여러

2) 그밖에 道安의 『人本欲生經注』, 僧肇의 『金剛經注』 등이 있다.

주석가들의 과문에서 주목할 점은 「장수품」의 계송이 과문을 나누는 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수품」의 계송과 관련된 과문에 대해서는 경전 전반에 대한 과문을 다룬 뒤에 별도의 장에서 다룰 것이다. 다만 각 품 안에서 전개되는 세부적인 과문에 대한 세밀하고 전면적인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열반경』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과문을 위주로 검토해볼 것이다.

II. 중국불교 초기의 과문의 형태: 도생(道生)의 『법화경소(法花經疏)』와 법운(法雲)의 『법화의기(法華義記)』의 경우

중국불교 최초의 경전 주석서들 가운데 주석 내에서 본격적인 과문이 등장하는 것은 도생의 『법화경소』이다. 도생의 『법화경소』에 나타난 『법화경』의 과문은 중국의 최초의 과문에 따른 경전해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통하여 중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과문의 초기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도생은 『법화경』에 대한 분과(分科)를 논하면서 因, 果, 人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경전이 밝히는 바로는 무릇 세 단락이 있다. 서품에서부터 안락행품까지의 이 13품은 三인이 一인이 됨을 밝힌다. 용출품에서 추루품까지의 8품은 三果[가 一果가 됨]을³⁾ 변별한다. 약왕본사품에서 보현품까지의 6품은 모두 三인이 一인이 됨을 밝힌다.⁴⁾

먼저 삼인(三因)이 일인(一因)이 된다는 것은, 삼승각별(三乘各別)에 집착하여 삼승인행(三乘因行)을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법화경』에서는 사실상 삼승의 구별이 없고 일승의 인행(因行)으로 함께 돌아간다는 요지를 밝히고 있다. 삼승의 因이 최종적으로 일승의 因으로 판명되는 점은 『법화경』 전반에 걸쳐

3) 『妙法蓮花經疏』 「踊出品」(『新纂續藏經』27, p.14上9), “此品, 壽量之胤序, 欲明三果爲一果也.” ; 『妙法蓮花經疏』 「隨喜功德品」(『新纂續藏經』27, p.15中22), “上來明三果爲一果義.”

4) 『妙法蓮花經疏』(『新纂續藏經』27, pp.1下14-17), “此經所明, 凡有三段. 始於序品, 訖安樂行, 此三品, 明三因爲一因. 從踊出, 至于屬累品, 此八品辨三果. 從藥王終於普賢, 此六品均三人爲一人.”

변함없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삼과(三果)가 일과(一果)가 된다는 것은, 因 가운데의 삼승의 因이 일승의 因으로 귀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果 역시 삼승의 구별이 없으며 일승의 불과로 함께 돌아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인(三人)이 일인(一人)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인과가 모두 일승의 이치로 귀결됨을 밝혔으므로 이제 이러한 이치를 인간의 실제 품행(品行)에 적용한 것이다. 일인(一人) 단락에 대한 설명은 「약왕본사품」 첫머리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위에서 인과의 이치가 하나이니 취지가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궁극의 종지가 드러나니 깨달음이 있게 된다. 이 아래로는 모두 삼인(三人)이 일인(一人)이 된다는 것이니 이승의 아들이 大□(乘?)과 다르지 않음을 밝힌다. 경전을 설하여 마쳤으니 지금 유통하는 사람을 밝힌다. 이전에 경전을 행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의 행적을 드러내어 법화를 알린다.⁵⁾

도생의 과단에 따르면, 「서품(序品)」에서 「촉루품(屬累品)」까지는 인과의 이치가 하나임을 밝힌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품별로 살펴보면, 「서품」은 일인(一人) 단락에 대한 서(序)이고, 「용출품(踊出品)」은 일과(一果) 단락에 대한 서이다. 일인 단락 가운데 「방편품(方便品)」에서 「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까지는 정설(正說)이고, 일과 단락 가운데에서는 「수량품(壽量品)」과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이 정설이다. 일인 단락에서 「법사품(法師品)」은 유통(流通)이며, 일과 단락에서는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이 유통이다. 다시 『법화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서품」에서 「촉루품」까지 정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약왕본사품(藥王本事品)」 이하는 유통이 된다.

이상과 같은 『법화경』에 대한 도생의 과단은 이후 법운(法雲, 467-529)의 『법화의기(法華義記)』 가운데에서 계승되어 더욱 조직적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난다.⁶⁾ 법운은 『법

5) 『妙法蓮花經疏』 「藥王本事品」(『新纂續藏經』27, pp.16中17-20), “上明因果理一, 則無異趣, 宗極顯然, 領會有在. 自下均三人爲一人, 明二乘之子, 不得不同爲大□也. 說經既竟, 今明流通之人. 前來非不有證行經者. 今者標數人, 顯其行迹, 以證法華.”

6) 법운의 『법화경』 과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에 실린 칸노 히로시(菅野博史)의 논문 「광택사 법운의 법화경관」(민족사, 2014) 및 그가 역주한 『法華義記』(大藏出版, 1996)에 실린 해설 부분을 참조.

화경』 전체를 서(序), 정설(正說), 유통(流通)의 세 단락으로 나누었다. 각 품별로 살펴 보면, 그는 「서품」을 서로 보고, 「방편품」부터 「분별공덕품」의 전반(前半)까지를 정설로 보았으며, 「분별공덕품」의 후반(後半)부터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를 유통으로 보았다. 그리고 서는 다시 통서(通序)와 별서(別序)로 나누고, 정설은 다시 인의(因義)와 과의(果義)로 나누었으며, 유통은 다시 화타(化他)와 자행(自行)으로 나누었다. 도생과 법운의 분과를 비교해 보면, 도생은 『법화경』을 因, 果, 人으로 나누고, 법운은 序, 正說, 流通으로 나누어 관점상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법화경』을 세 단락으로 나누었다. 도생은 자신의 분과 안에서 부분적으로 序와 流通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법운은 正說을 因義와 果義로 나누어 도생이 인과론(因果論)으로써 『법화경』의 사상을 해석한 점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칸노 히로시(菅野博史) 역시 법운이 『법화경』의 사상을 因果論의 시점에서 정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⁷⁾ 이렇게 볼 때 도생의 분과는 그 명칭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단계이긴 하나 내용상으로 법운의 분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도생과 법운의 분과는 이후의 법화학자들의 『법화경』에 대한 분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길장(吉藏)의 『법화외소(法華義疏)』, 지의(智顓)의 『법화문구(法華文句)』 가운데에서 더욱 상세한 분과로 전개된다.

도생의 과문에 등장하는 因果 개념은 당시 중국에서 대승경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시되던 개념으로 보인다. 因果 개념이란 수행으로서의 因과 그 수행의 결과 실현될 종교적 이상으로서의 果이며, 다시 말해서 수행과 그 수행에 의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를 가리킨다. 因果 개념으로써 경전의 대강을 접근하는 방식은 『대반열반경집해』의 과문에도 부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⁸⁾ 이것은 후대에 정착된 서분, 정중분, 유통분이라는 과문의 기본형식에 대한 설계에 앞서 경전의 교의에 대한 내용적 이해가 과문을 설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주유마힐경』의 주석이 경전의 구와 문을 따라가며 해당구절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그쳤다면, 도생의 『법화경소』는 경전의 전체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는 경전

7) 菅野博史(2014), 「광택사 법운의 법화경관」,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 민족사, pp.122-126 참조.
 8) 예컨대 보량은 『대반열반경집해』에서 『열반경』 「여래성품」을 네 개의 과단으로 나누고, “첫째, 다섯 비유를 들어 먼저 인과의 성격을 확정한다. … 넷째, 과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서는 인을 철저히 볼 수 없음을 밝힌다. 初有五譬, 先定因果性也. … 第四, … 明白非窮照果理, 無以徹見因.” (大正藏37, 448上2-6)라고 하여 「여래성품」의 대강을 因果 개념으로써 접근하고 있다.

에 대한 진일보한 이해를 의미하며, 대승경전에 대한 당시 중국인들의 이해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도생의 『법화경소』에 이어서 좀더 세분화된 과문 형식을 보여주는 중국불교 초기의 주석서가 바로 『대반열반경집해』이다. 도생의 『법화경소』가 단일한 인물에 의한 단일한 경전에 대한 주석인 반면, 『집해』는 동일한 경전에 대한 다양한 주석가들의 견해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당시 『열반경』에 대한 다양한 과문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과문이 경전의 전체 내용에 걸쳐 등장하는 것은 아닌 까닭에 과문의 전반적 면모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집해』의 과문이 『법화경소』의 과문에 비해서는 좀더 세분화되긴 하였지만, 후대의 과문과 같이 정밀한 형태를 띠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중국불교의 경전해석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과문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초기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Ⅲ. 『대반열반경집해』에 등장하는 열반학자⁹⁾들의 과문

『대반열반경집해』에 주석이 실린 주석가(註釋家)들을 모두 합하면 20명가량 된다. 서문(序文)에 등장하는 10인(道生, 僧亮, 法瑤, 曇濟, 僧宗, 寶亮, 智秀, 法智, 法安, 曇准) 이외에 담애(曇愛), 혜량(慧朗), 담섬(曇纖), 명준(明駿), 혜탄(慧誕), 도혜(道慧)(記), 지

9) 5-6세기 남조에서 활동한 『열반경』의 주석가들에 대하여 열반사(涅槃師)라는 용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들은 열반사라고 표현할 경우 단순히 『열반경』에 대해 주석한 승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반경』을 중시하고 『열반경』의 사상 내용에 입각하여 불교교학을 체계화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지론사나 성실사와 같은 남북조 시기의 여러 학파는 모두 자신만의 교의학설이 있었으며, 다른 학파와 논쟁도 있었다. 지론사는 『십지경론』을 가지고 불교경전을 이해하며, 성실사는 『성실론』을 가지고 불교경전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론사와 성실사는 각자 경전을 이해하는 방법론상의 일치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베이징대학의 왕송(王頌) 교수가 2013년 7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주최 제6회 국제학술대회: 『종파불교 성립기의 중국불교 사상』에서 발표한 「대낮처럼 자명한 듯한 은폐: 종파 문제의 재고찰(昭如白日的晦蔽者: 重議宗派問題)」이라는 논문을 참고할만하다. 그는 종파의 십대요소로 교의학설(教義學說), 법통계보(法統譜系), 소의교전(所依教典), 종조승배(宗祖崇拜), 교단조직(敎團組織), 제법(制法), 의궤(儀軌), 전속사원(專屬寺院), 외재제도(外在制度), 파벌투쟁(派系鬥爭) 등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교의학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교의학설은 종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며, 학파도 교의학설을 간직하고 있고 전승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열반경』 주석가들의 경우 『열반경』을 중시하여 그에 대한 주석을 남기긴 하였으나 그 내용들 속에서 『열반경』의 사상에 입각하여 불교교학을 체계화한 모습이 보였는가, 다시 말해서 사상적으로 동일한 모습이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열반사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당시 『열반경』의 주석가들을 통칭하여 열반학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장(智藏), 경유(敬遺)(記), 법련(法蓮)(記), 해령(慧命) 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열반경』 전반에 대한 과문을 언급하고 있는 이들은 담제(411-475), 승량, 보량(444-509), 승중(438-496), 담준, 담애, 도혜, 법지, 담섭, 지수, 법안(454-498), 명준의 12인이다. 이들의 과문은 『大般涅槃經集解』卷第一의 判科段第八 항목(大正藏37, 382上-383上)에 그 대강이 실려 있다. 그런데 주석가들 가운데 생물연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과문들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과문들의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 표를 작성하였다. 즉 과문의 형태가 비교적 단순한 것들로부터 복잡한 것들로 발전해 나간다는 가정 아래 배열의 순서를 정하였고, 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과문의 형태적 유사성이 보이는 것들끼리 나란히 배치해 보았다. 주석가들 각각의 과문을 『대반열반경』(남본) 각 품에 대응시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표 3> 참조, 주석가 이름 뒤의 숫자는 과단의 수를 표시)

<표 1>

『大般涅槃經』(南本)	曇濟(3)	僧亮(4)	寶亮(4)		僧宗(5)	曇淮(3)
1 序品	勸分	勸問?	勸問	問家緣起	略開常宗	序
2 純陀品						
3 哀歎品						
4 長壽品	問分	問?	發問	迦葉正問	廣明常住	正說
5 金剛身品	答分	答問?	答問	如來正答		
6 名字功德品						
7 四相品						
8 四依品						
9 分邪正品						
10 四諦品						
11 四倒品						
12 如來性品						
13 文字品						
14 鳥喩品						
15 月喩品						
16 菩薩品						
17 大衆所問品						
18 現病品						
19 聖行品						
20 梵行品						
21 嬰兒行品						
22 德王菩薩品						
23 師子吼菩薩品						
24 迦葉菩薩品						
25 憍陳如品	顧命受持之人	流通				

(丑 2)

『大般涅槃經』(南本)	曇准(撰)(8)	曇愛(10)	道慧(記)(10)	道慧(撰)(10)	法智(7)
1 序品	序	序說	序說	序說	經家序說
2 純陀品	開宗	正說	正說	開宗	開宗
3 哀歎品				會通	
4 長壽品	明緣因境及經功德	流通說	流通說	流通	隨問說
5 金剛身品					
6 名字功德品					
7 四相品					
8 四依品					
9 分邪正品	明正因佛性	佛性說	佛性說	正說	
10 四諦品					
11 四倒品					
12 如來性品					
13 文字品	歎經功德	歎經	證成常住	說五行	
14 鳥喩品					
15 月喩品					
16 菩薩品	廣緣因行：五行十功德	明依經修行：五行 出行體：十功德	明所得：五行十功德	明因：五行	說功德
17 大眾所問品					
18 現病品	廣正因性	料簡	境界明義	明佛性	明因果佛性
19 聖行品		猶是料簡佛性			
20 梵行品	廣明果相	明流通	破外道說	破外道	化外道說
21 嬰兒行品					
22 德王菩薩品	廣明果相	明流通	破外道說	破外道	化外道說
23 師子吼菩薩品					
24 迦葉菩薩品					
25 憍陳如品					

〈丑 3〉

『大般涅槃經』(南本)	曇繼(10)	智秀(5)	法安(10)	明敏(9)			
1 序品	序品	由序		敘述			
2 純陀品	開宗明常住因果	略門 正說	經之由序	略說	開宗勸問		
3 哀歎品							
4 長壽品	問						
5 金剛身品	略門 答			正明經體	略說	問答	
6 名字功德品							
7 四相品				明流通人法			
8 四依品				明佛性			
9 分邪正品				歎經囑累			
10 四諦品							
11 四倒品							
12 如來性品	付囑		付囑		略說	略付囑	
13 文字品							
14 鳥喩品							
15 月喩品							
16 菩薩品							
17 大衆所問品							
18 現病品	廣果	略門 廣前正說	由序	廣說	廣前開宗		
19 聖行品	廣因：五行		廣前正說		重明涅槃因果：五行	廣前問答之旨	廣行廣因
20 梵行品							
21 嬰兒行品							
22 德王菩薩品	廣流通：十功德				明流通功德		
23 師子吼菩薩品	廣佛性				重明佛性		廣境
24 迦葉菩薩品							廣常果
25 憍陳如品	廣付囑		廣前付囑		重更囑累		廣前付囑

이들 가운데 담준과 도혜의 경우에는 『집해』 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과문이 발견된다. 따라서 『집해』에 등장하는 과문의 종류를 모두 합하면 12家14說이 된다. 먼저 <표 1>에 제시된 담제의 과문을 보면, 경전의 처음부터 「장수품」가섭의 發問 전까지를 勸分, 가섭의 發問 부분을 問分, 여래의 答問부터 경전의 끝까지를 答分으로 보는 三別說을 주장하는데, 승량·보량 등의 四別說의

유래가 되는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승종은 由序, 略開常宗, 廣明常住, 先破外道, 顧命受持之人的 五別說을 전개하는데, 제1단은 序分, 제2·제3단은 正宗分, 제4·제5단은 流通分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장수품」부터 「가섭품」까지에 해당하는 제3단에서 因果와 境行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마지막으로 顧命付囑에 앞서 외도를 논파한다. <표1>의 마지막에 제시된 答준의 序-正說-流通의 三分說은 <표2>, <표3>에 제시된 여러 과문들을 통하여 略門[서-정설-유통]-廣門으로 체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 인물에게 두 가지 과문이 설해지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과 <표 2>에 걸쳐 제시된 答준과 도해의 서로 다른 과문은 『집해』 내에서 일반적인 ‘~曰’의 형태 이외에 ‘~撰曰’ 또는 ‘~記曰’로 시작되는 인용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 答준의 두 과문은 그 형태가 매우 다른 편인데, 단순한 형태의 과문이 시기를 두고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 나간 것일 수 있다. ‘記曰’ 이하에서 소개된 도해의 과문은 전체가 10단이며, 이 가운데 「여래성품」과 「월유품」에 해당하는 제4단 佛性說은 常을 얻는 까닭이 本有佛性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현병품」에 해당하는 제6단 證成常住는 不食으로써 食을 드러내고 不病으로써 病을 드러내며 不滅로써 滅을 드러내는 것을 밝힌다. 제7단 明所得은 病을 없애는 것은 行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밝히는데, 여기서 行은 五行+功德을 가리킨다.

보량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과문이 발견되는데, 하나(<표 1>에 제시된 과단의 왼쪽)는 『집해』에 등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표 1>에 제시된 과단의 오른쪽)는 지원(智圓, 976-1022)의 『열반경소삼덕지귀(涅槃經疏三德指歸)』에 등장하는 것이다.¹⁰⁾ 이 가운데 『집해』에 소개된 것을 살펴보면, 보량은 『열반경』이 중생의 의심에 대하여 여래가 응답하는 문답 형식을 통하여 그 종지를 펼치고 있다고 파악하고, 여래의 雙樹 이전의 가르침은 半字教·皆不了義이며, 雙樹 이후의 가르침이 滿字·了義임을 밝힌다고 보았다. 그런데 보량의 두 가지 과문 가운데 第三段의 범위가 『집해』의 것은 「금강신품」부터 「가섭보살품」까지이고, 『지귀』의 것은 「금강신품」부터 「일체대중소문품」까지여서 그 범위가 매우 다르다. 지원이 무엇에 근거하여 이러한 과문을 소개하였는지는

10) 『涅槃經疏三德指歸』(新纂續藏經37, 312上3-7).

알 수 없다. 장안(章安, 561-632)은 『대반열반경소(大般涅槃經疏)』에서 보량의 과문에 대하여 “問有緣起，答有餘勢”¹¹⁾라고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후세 고가쿠(布施浩岳)는 『집해』에 등장하는 이상의 12명의 과문에 대하여 장수품분획설, 교진여품분획설, 대중문품분획설, 불분획설 등의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²⁾ 그의 분류법은 『집해』의 과단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므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표 1>에 등장하는 담제, 승량, 보량 등을 장수품분획설에 속하는 주석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전의 처음부터 「장수품」의 迦葉發問 전 長行까지¹³⁾를 하나의 단락으로 분류하고, 迦葉의 發問¹⁴⁾을 하나의 단락으로 본 다음, 이어지는 如來의 答問부터는 다른 단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의 과문에 의하면 「장수품」은 迦葉發問을 기준으로 세 단락으로 나뉘게 된다.

법안의 경우 경전의 처음부터 「장수품」의 迦葉發問까지를 하나의 단락(經之由序)으로 분류하여 「장수품」이 두 단락으로 나뉘고 있으므로, 법안 역시 장수품분획설에 속하는 주석가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들은 비교적 오래된 형태의 과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수품」 이외에 다른 품에 대한 분획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로 교진여품분획설에 속하는 주석가들로 <표 1>과 <표 2>에 걸쳐 등장하는 승중, 담준, 도혜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阿難何在」¹⁵⁾를 기준으로 하여 「교진여품」을 두 단락으로 분류하고, 「阿難何在」 이하 단락을 付囑 또는 囑累로 호칭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담준의 과문으로는 八段說과 三分說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序·正說·流通의 三分說은 정설과 유통이 「교진여품」의 「阿難何在」를 기준으로 나뉘고 있어 역시 「교진여품」을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다.

다음으로 대중문품분획설이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주석가들로는 <표 3>의 담섬, 지수 등이 있다. 이들의 과문은 경 전체를 廣略二門으로 크게 분류하고, 「일체대중소문품」 말미의 「爾時大眾」 이하의 짧은 長行 한 節¹⁶⁾을 付囑段으로 별도

11) 『大般涅槃經疏』(大正藏38, 43上28-29)

12) 布施浩岳, 『涅槃宗之研究』後篇, 國書刊行會, 1973, pp.408-426 참조.

13) 『大般涅槃經』, 大正藏12, 619中5까지를 말함.

14) 『大般涅槃經』(大正藏12, 619中5-620上9), 「長壽品」 23偈頌 부분을 말함.

15) 『大般涅槃經』, 大正藏12, 848下13 이하를 말함.

로 세워 「일체대중소문품」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담섬은 第三問을 「장수품」의 迦葉發問까지로 보고, 第四答을 「장수품」佛讚迦葉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법안과 마찬가지로 「장수품」二分說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지수와는 다른 점이다.

그 다음 불분획설이 있다. 『열반경』 각 품에 대하여 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문으로, <표 2>의 법지, 담애가 여기에 속한다. 법지는 序說·正說의 二分說 내에 十段說이 결합된 형태이다. 담애는 十段說 내에 序說, 正說, 流通說의 단락명이 등장하여 三分說을 포함하고 있는데, 三分說에 해당하는 단락명은 도혜의 十段說 내에서도 발견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열반경』 주석가들의 과문 가운데 열반학의 성립과 관련하여 교학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개념들이 단락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開宗 단락은 대체로 「순타품」과 「애탄품」을 가리키고 있는데, 과단에서 開宗을 명시한 이들로는 법지, 담섬, 승중, 담준, 도혜가 있다. 과단 가운데 五行十功德을 언급한 이들로는 법지, 담애, 담섬, 담준이 있다. 과단에서 付囑을 명기한 이들 가운데 담섬, 지수의 경우, 略門의 마지막 단락인 「일체대중소문품」과 廣門의 마지막 단락인 「교진여품」을 각각 付囑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승중, 보량, 담준, 도혜, 법안 등은 모두 「교진여품」에 대하여 付囑 또는 囑累라고 명기하고 있다. 불성론과 관련하여 담준은 과단 가운데 正因性和緣因(性)을 명시하였으며, 담섬, 승중, 도혜는 常住義를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표 3>에 등장하는 명준의 과문이다. 『집해』의 여러 주석가들의 과문을 종합한 것으로 파악되는 명준의 과문은 敘述·略說·廣說의 3단이며 略說과 廣說은 다시 3단락으로 세분된다. 명준의 과문에서는 <표 1>의 담준의 과문에 보이는 序·正說·流通의 三分說과 <표 3>의 담섬, 지수의 과문에 보이는 略廣二門說을 종합하여 敘·略·廣 三分說을 제시하고 있다. 명준이 서·정·유통의 삼분설을 채택하지 않고 略廣二門說을 자신의 삼분설에 반영한 것은 『열반경』의 구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정·유통설은 담준의 과문뿐만 아니라 앞장에서 살펴본 법운이 『법화의

16) 『大般涅槃經』(大正藏12, 669下6-16).

기』에서 표명한 『법화경』에 대한 과문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명준이 당시에 서·정·유통설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확실하며, 그럼에도 채택하지 않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의 고증에 따르면, 『열반경』은 그 성립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립 시기에 따라 세 층으로 나뉜다. 즉 제1류와 제2류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또한 둘로 분류된다.¹⁷⁾ 이에 따라 『열반경』의 내용 역시 성립단층에 따라서 교리가 중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古層에 속하는 제1류는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성립시기가 다소 후대인 제2류로 갈수록 교리상의 설명은 더욱 자세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서·략·광 삼분설이라는 과문은 『열반경』의 성립 특성상 내용이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점을 충실히 반영한 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명준의 과단의 또다른 특징은 품분획설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준의 과문에서 略說門 가운데 第一開宗勸問은 「순타품」에서 「장수품」의 迦葉發問 長行까지를 말하며, 第二問答은 「장수품」 迦葉發問부터 「일체대중소문품」 대부분을 포함하므로 「장수품」을 둘로 분획하고 있다. 또 第三略付囑은 「일체대중소문품」 마지막 짧은 長行 한 節을 가리키므로 「일체대중소문품」 역시 둘로 분획하고 있다. 「장수품」과 「일체대중소문품」의 분획 위치도 보량, 담섬의 과문에 나타난 위치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廣說門 가운데 第二廣前問答은 五行부터 「교진여품」 초입까지이고 第三廣前付囑은 「교진여품」 가운데 「爾時外道」 이하¹⁸⁾부터 끝까지이므로 승중 등의 분획 위치와는 차이가 있긴 하나 「교진여품」 역시 둘로 분획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준의 과문은 장수품분획설, 대중문품분획설, 교진여품분획설 등 세 종류의 품분획설을 모두 채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명준의 과문이 제시하는 교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略說의 第一段을 開宗으로 제시하는 것은 승중, 담준, 법지, 담섬 등에게서도 보이는 점이나, 廣說의 第一段을 다시 開宗으로 명시한 것은 명준의 과문에만 보이는 특색이다. 이는 명준의 『열반경』의 구성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略說의 第二問答과 第三付囑 역시 廣說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명준의 과문이 略說의 개종, 문

17) 下田正弘, 『涅槃經の研究』, 春秋社, 1997, pp.160.

18) 『大般涅槃經』, 大正藏12, 838下25 이하를 말함.

답, 부촉을 廣說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명준은 廣說의 第二廣前問答之旨에서 『열반경』의 종지에 대하여 常住因果가 境·行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⁹⁾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食은 生의 本이고 病은 滅의 因이다. 따라서 앞의 「순타품」에서는 食에 의거해서 現生을 밝히고, 뒤의 「현병품」에서는 病에 의거해서 示滅을 밝힌다. 또 경에서 밝히는 常住의 因果가 境과 行이 되니, 「성행품」, 「범행품」, 「영아행품」은 五行을 설명하고, 「덕왕보살품」은 十功德을 설명하여 行과 因을 자세히 설명하며, 「사자후보살품」과 「가섭보살품」은 境을 자세히 설명하고, 「교진여품」은 常果를 자세히 밝혀 無常의 色을 滅하고 解脫常樂의 色을 획득한다. 『열반경』의 교의에 대한 명준의 이해가 과문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열반경』에 대한 남북조 시기 중국불교학자들의 과문

『대반열반경집해』가 남조의 주류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들의 과단을 함께 제시하여 5-6세기 중국 불교에서의 『열반경』 과단에 대해 보다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집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남북조 시기 중국불교학자들의 『열반경』에 대한 과문으로는 世親作·達摩菩提譯으로 알려진 『열반론(涅槃論)』²⁰⁾, 河西道朗(5세기전 반), 興皇寺法朗(507-581)의 과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도랑과 법랑은 저술이 남아 있지 않은 대신 그 과문에 대한 소개가 장안(章安)의 『대반열반경소(大般涅槃經疏)』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²¹⁾ 이들의 과문을 『대반열반경』(남본) 각 품에 대응시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19) 『大般涅槃經集解』卷第一(大正藏37, 383上18-22).

20) 『열반론』에 관련된 문제로는 저자 및 성립시기 등에 대하여 인도의 世親이 저술한 것을 漢譯한 것이라는 주장(島地大等) 이외에 중국에서 찬술되었으며(布施浩岳, 大竹晋), 그 저자가 慧可일 것이라는 주장(伊吹敦)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열반론』의 과문으로 논의를 한정하여 다루기로 한다.(伊吹敦, 「慧可と涅槃論」(上)-(下), 『東洋學研究』37-38, 2000-2001; 大竹晋, 「涅槃論解題」, 新國譯大藏經·釋經論部18, 『法華經論·無量壽經論 他』, 大藏出版, 2011 참조)

21) 『大般涅槃經疏』(大正藏38, 43上29-中7, 43中15-19).

〈丑 4〉

『大般涅槃經』(南本)	『涅槃論』(7)	河西道朗(5)	興皇寺法朗(8)	『大般涅槃經疏』(5)	
서품	不思議神通反示分	引接今昔有緣門	引接今昔有緣門	召請涅槃衆	
순타품 애탄품	成就種性遣執分		破疑除執門	開演涅槃施	
장수품 금강신품 명자공덕품 사상품 사의품 분사정품 사제품 사도품 여래성품 문자품 조유품 월유품 보살품 대중소문품	正法實義分	略廣門	略廣門		
현병품 성행품 범행품 영아행품	方便修成分	涅槃行門	行門		示現涅槃行
덕왕보살품		菩薩功德門	位門		
사자후보살품	離欲放逸入證分	不可思議中道 佛性門	行中道門		問答涅槃義
가섭보살품	慈光善巧住持分		方便門		折攝涅槃用
교진여품	顯相分		邪正不二門		

『열반론』은 남북조 시기에 전개된 열반학의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열반경』의 과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열반경』 전체를 이해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열반경』에 관심을 갖고 있던 당시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안의 『대반열반경소』에 따르면 『열반론』의 과문은 지론사(地論師)의 과문과 일치하고 있다.²²⁾ 이를 근거로 북위(北魏,

22) 『大般涅槃經疏』(大正藏38, 43中7-15), “地師以第一卷爲神通反示分此得權失實, 今言召請即無所偏, 彼以第二卷爲種性破疑除執分, 第三卷至大衆問爲正法實義分, 今爲一涅槃施, 則兼其二分, 彼以五行十功德爲方便修成分, 彼以師子吼爲不放逸入證分, 前之修成已是入證, 證又入證可非煩重, 今爲義章, 彼以迦葉爲慈悲住持分, 陳如爲顯相分, 持惡向善顯邪還正合爲用章.”

386-534)시기에 達摩菩提가 번역하였다고 전해지는 『열반론』이 북지(北地)에서 유행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열반론』의 과문을 북지 지론사의 대표인인 정영사 혜원(淨影寺慧遠, 523-592)의 과문과 비교해 보면 별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 혜원은 五分說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序分(서품), 開宗顯德分(순타품~애탄품), 辯修成德分(장수품~교진여품), 破邪通正分(교진여품), 闡維供養分(後分).²³⁾ 이 중에서 別本인 後分을 제외하면 혜원은 남본 『열반경』을 기준으로 할 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열반론』의 과문은 혜원보다는 하서도량과 그것을 발전시킨 흥황사 법랑의 과문과의 공통점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법랑과의 유사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혜원의 과문은 남조 학자인 승종의 과문(Ⅲ. <표 1> 참조)과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승전』(권8)의 승종 전기에는 승종의 명성을 듣고 북조에서 일부러 수학하러 온 담준을 통하여 승종의 『열반경』에 대한 이해가 북중국에 전해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²⁴⁾ 담준을 통해 북중국에 전해진 교학이 혜원의 『열반경의기(涅槃經義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랑의 八門은 도량의 과문의 引接今昔有緣門을 引接今昔有緣門과 破疑除執門으로 분과하고, 不可思議中道佛性門을 行中道門, 方便用門, 邪正不二門으로 분과하는 등 하서도량의 五門分科를 계승하여 더욱 세분한 측면이 있다. 또한 도량과 법랑의 과문에서 보이는 略廣門이라는 과단명이라든가(담섬, 지수), 「성행품», 「범행품», 「영아행품」을 行門으로 놓고 「덕왕보살품」을 功德門으로 놓는(담애, 도혜(찬), 법지, 담섬, 법안) 등의 과문의 분류방식은 앞서 살펴본 『집해』에 등장하는 『열반경』 주석가들의 과문과 상당히 유사하다.²⁵⁾ 그런

23) 『大般涅槃經義記』(大正藏37, 614下5-15).

24) 『高僧傳』(大正藏50, 380上3-6), “先是北土法師曇准聞宗特善涅槃, 迺南遊觀聽, 既南北情異, 不相參, 准乃別更講說, 多為北土所師.”

25) 이외에도 다음의 과문들이 전해져 온다.

梁武帝(502-549在位) 二分說: 中前(서품~대중소문품), 中後(현병품~교진여품)

僧旻 二分說: 第一周(서품~대중소문품), 第二周(현병품 이하)

智藏(458-522) 二分說: 序分(서품), 正宗分(순타품~교진여품)

法雲(467-529) 三分說: 序分(서품), 正宗分(순타품~가섭보살품), 流通分(교진여품)

有人 七分說(혜원이 소개): 序分, 正宗(略說-明佛現果·顯其緣因·彰佛性正因, 廣說-廣前現果·廣前緣因·廣前正因)

善曹 七分說: 第七結化歸宗分(교진여품에 상당, 後分을 부정)

데 길장이 『대승현론(大乘玄論)』卷第三 「불성의(佛性義)」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도량은 『열반의소(涅槃義疏)』를 지었으며, 이후의 여러 학자들은 그의 『열반의소』에 의거하여 열반을 강의하고 불성의를 해석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⁶⁾ 또 남북조 시기의 강남 지역 열반학을 종합하여 정리한 장안은 『대반열반경소』에서 종래의 설(舊云)과 법랑의 설(興皇云)을 대비시켜 제시함으로써 법랑의 열반 해석이 이전의 육조제가(六朝諸家)의 설과 구별되는 비교적 새로운 견해임을 보여주고 있다.²⁷⁾ 이렇게 볼 때 도량이 『집해』의 주석가들의 『열반경』 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며, 법랑은 이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道朗-『集解』諸家-法朗·『涅槃論』이라는 사상적 연결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는데, 남조의 열반학자들의 사상과 도량, 법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

V. 「장수품」 계송에 의한 『대반열반경』의 과문

『집해』에 나타난 『열반경』에 대한 여러 주석가들의 과문의 형식에서 주목할 점은 「장수품」의 계송이 과문을 나누는 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송은 「장수품」 迦葉發問에 해당하는 23계송으로, 그 안에는 ‘云何’로 시작되는 34가지 질문이 들어있다. 각 질문들은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열반경』의 25품에 각각 대응하게 되며, 偈[問]-品[答]의 대응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살펴본 과문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과문이 등장하게 된다. 「장수품」 계송에 따른 각 주석가들의 과문은 계송에 대한 주석이 실려 있는 부분인 『大般涅槃經集解』卷第八(大正藏37, 411中-415中)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들의 과문을 「장수품」 23계송에 대응시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표 8> 참조)

26) 但河西道朗法師與曇無讖法師，共翻涅槃經。親承三藏作涅槃義疏。釋佛性義正以中道為佛性。爾後諸師，皆依朗法師義疏。得講涅槃乃至釋佛性義。(『大乘玄論』，大正藏45, 35下19-22)

27) 女人產者。舊云。女人譬生善。闍樓此言兒衣。兒譬常解。衣譬煩惱。煩惱難除。譬衣不出。興皇云。女譬菩薩。產譬正觀。衣譬常無常兩教。夫兒衣裹兒。兒若出者衣亦須去。若不出者反為大患。常無常教本生中觀。觀解若成此教須去。教若不去反復成病。…
推乾去濕者。舊云。慢為乾。愛為濕。興皇云。二乘如乾。凡夫如濕。
除不淨者。舊云。除無明。興皇云。除斷常諸倒。容受中道。故言長養其身。(『大般涅槃經疏』，大正藏38, 114下7-23)

(丑 5)

「長壽品」 23偈頌 34問		僧亮		曇濟	
1	1 云何得長壽 2 金剛不壞身 3 復以何因緣 4 得大堅固力	略	初兩問果 第三問因	장수품, 금강신품	第一正明經體
2	5 云何於此經 究竟到彼岸		第四問經 名字	명자공덕품	
	6 願佛開微密 廣爲衆生說	廣	初一問廣果	사상품	第二廣上果及 經名字流通
3	7 云何得廣大 爲衆作依止 實非阿羅漢 量與羅漢等		四問廣流 通及依人 之義	사의품	
4	8-9 云何知天魔 爲衆作留難 如來波旬說 云何分別知			분사정품	
5	10 云何諸調御 心喜說眞諦 正善具成就 11 演說四顛倒			사제품 사도품	
6	12 云何作善業 大仙今當說 云何諸菩薩 能見難見性			兩問廣因	
7	13 云何解滿字 及與半字義		九問廣文 字功德	문자품	
14	云何共聖行 如娑羅婆鳥 15 迦隣提日月 太白與歲星			조유품, 일유품	
16	云何未發心 而名爲菩薩			일유품	
9	17 云何於大衆 而得無所畏 猶如闍浮金 無能說其過			보살품	
10	18 云何處濁世 不污如蓮華 19 云何處煩惱 煩惱不能染				
11	如醫療衆病 不爲病所污 20 生死大海中 云何作船師				
12	21 云何捨生死 如蛇脫故皮 22 云何觀三寶 猶如天意樹				
13	23 三乘若無性 云何而得說 猶如樂未生 云何名受樂	勸信	問意	대중소문품	
14	24 云何諸菩薩 而得不壞衆 25 云何爲生盲 而作眼目導		舉果勸信		
15	26 云何示多頭 唯願大仙說 云何說法者 27 增長如月初		說有大慈		
16	28 云何復示現 究竟於涅槃 29 云何勇進者 爲諸菩薩故		說涅槃		
17	30 云何知法性 而受於法樂		應現		
18	31 云何諸菩薩 遠離一切病 32 云何爲衆生 演說於祕密	證不病 密教	현병품		
19	33 云何說畢竟 及與不畢竟 如其斷疑網 云何不定說	問修 行	問依經修行	성행품	第四問因經修行
20	34 云何而得近 最勝無上道 我今請如來 微妙諸行等 願爲說甚深		釋所以差 請說行義		
21	一切諸法中 悉有安樂性 唯願大仙尊 爲我分別說	問性	사자후보살품, 가섭보살품	第五辨依經行	
22	衆生大依止 兩足尊妙藥 今欲問諸陰 而我無智慧	說涅槃			第六擬以憍陳 如答
23	精進諸菩薩 亦復不能知 如是等甚深 諸佛之境界				

〈丑 6〉

「長壽品」 23偈頌 34問		寶亮		明駿		
1	1 云何得長壽 2 金剛不壞身	略門		略	第一問長壽因, 第二問長壽果(1a), 第三問金剛身果(1b)	
	3 復以何因緣 4 得大堅固力				第四問金剛身因(1cd)	
2	5 云何於此經 究竟到彼岸	廣門	正廣果用		第六問經力, 第七問經名(2a), 第五問辨說(2b)	
3	6 願佛開微密 廣為衆生說		廣流通	問流通人德量高下		第八問流通依(2cd)
	7 云何得廣大 實非阿羅漢			問教		問廣果地三德(3a)
4	8-9 云何知天魔 如來波旬說			廣因		廣流通
5	10 云何諸調御 正善具成就		定其文字		廣因四諦四倒	舉解惑以明智
6	12 云何作善業 云何諸菩薩		廣文字功德			舉始終以明正因
7	13 云何解滿字 云何共聖行				廣經名字	
8	15 迦隣提日月 云何未發心				廣經力	廣因地
9	16 云何於大衆 猶如閻浮金					
10	17 云何處濁世 云何處煩惱					廣果地
11	18 云何處煩惱 如醫療衆病					
12	19 生死大海中 云何捨生死					
13	20 云何觀三寶 三乘若無性					
14	21 猶如樂未生 云何諸菩薩					
15	22 云何復示現 云何勇進者	斷疑勸信	明內果勸信		勸信	
16	23 云何知法性 云何諸菩薩		就應現以勸信			
17	24 云何說畢竟 如其斷疑網	隨根性說法以勸信				
18	25 云何而得近 最勝無上道	共證究竟事				
19	26 我今請如來 願為說甚深					
20	27 一切諸法中 唯願大仙尊					
21	28 衆生大依止 今欲問諸陰					
22	29 精進諸菩薩 如是等甚深					
23	30 為諸菩薩故 微妙諸行等					
	31 悉有安樂性 為我分別說					
	32 兩足尊妙藥 而我無智慧					
	33 亦復不能知 諸佛之境界					
	34 明五人從四時學					

(丑 7)

「長壽品」 23偈頌 34問		僧宗		智秀	
1	1 云何得長壽 2 金剛不壞身 3 復以何因緣 4 得大堅固力	略門明般若法身	問般若(1a)	問因果結名字	第一問云何得
			問法身(1b)		第二問長壽果相
2	5 云何於此經 究竟到彼岸	第一明常住因果	問因(1cd)	問通經之法及能通之人	第三問法身果
			經究竟, 人究竟(2ab)		第四問金剛身因
3	6 願佛開微密 廣為衆生說	廣門明解脫	廣說如來二種隱覆	問通經之法及能通之人	第六問弘通之法
			辨流通者		
4	7 云何得廣大實非阿羅漢 8-9 云何知天魔如來波旬說	廣門明解脫	檢耶(邪?)正	問通經之法及能通之人	第九問境
			廣前因義		第十問翻理相
5	10 云何諸調御正善具成就	廣門明解脫	一重善業之始	問通經之法及能通之人	第十一問佛性理
			二重善業之終		第十二問何地大士
6	12 云何作善業云何捨苦薩	廣門明解脫	第三重廣流通	問通經之法及能通之人	第十三問意
			第四重廣流通		
7	13 云何共聖行迦隣提日月	略數	數因益	問經之勢力	第十七問經之力能滅業障
					數果益
8	14 云何未發心云何於大衆猶如闍浮金	第一數經功能	廣數經	問經之勢力	第十九問經力能滅煩惱障
					因益
9	15 云何處濁世云何處煩惱如醫療衆病	第一數經功能	廣數經	問經之勢力	問應迹滅不滅義
					果益
10	16 生死大海中云何捨生死云何觀三寶	第一數經功能	廣數經	問經之勢力	
					就釋迦辨滅不滅
11	17 三乘若無性猶如樂未生云何諸菩薩云何為生盲	第一數經功能	廣數經	問經之勢力	
					明無滅
12	18 云何示多頭云何說法者	第一數經功能	廣數經	問經之勢力	
					明無病
13	19 云何復示現云何勇進者	第一數經功能	廣數經	問經之勢力	
14	20 云何知法性云何諸菩薩	第一數經功能	廣數經	問經之勢力	
15	21 云何為衆生云何說畢竟如其斷疑網云何而得近	第一數經功能	廣數經	問經之勢力	
16	22 我今請如來願為說甚深一切諸法中唯願大仙尊	第三明依經生行	廣數經	問經之勢力	
					第四明所照之境
17	23 衆生大依止今欲問諸陰精進諸菩薩如是等甚深	第三明依經生行	廣數經	問經之勢力	
18	23 衆生大依止今欲問諸陰精進諸菩薩如是等甚深	第三明依經生行	廣數經	問經之勢力	

(丑 8)

『長壽品』 23偈頌 34問		僧亮	河西道朗	『涅槃經治定疏科』	
1	1 云何得長壽 2 金剛不壞身 3 復以何因緣 4 得大堅固力	장수품 금강신품	장수품 금강신품	初答長壽因果 二問 二答金剛及堅 固力二問	
2	5 云何於此經 究竟到彼岸 6 願佛開微密 廣爲衆生說	명자공덕품 사상품	명자공덕품 사상품	三答究竟彼岸問 四答開微密問	
3	7 云何得廣大 爲衆作依止 實非阿羅漢 量與羅漢等	사의품	사의품	五答作依止問	
4	8-9 云何知天魔 爲衆作留難 如來波旬說 云何分別知	분사정품	분사정품	六答云何知天 魔問	
5	10 云何諸調御 心喜說眞諦	사제품	사제품	七答心喜說眞 諦問	
	正善具成就 11 演說四顛倒	사도품	사도품	八答演說四顛 倒問	
6	12 云何作善業 大仙今當說 云何諸菩薩 能見難見性	여래성품	여래성품	九答善業見性 二問	
7	13 云何解滿字 及與半字義	문자품	문자품	十答解滿字問	
8	14 云何共聖行 如娑羅娑鳥 迦隣提日月 太白與歲星	조유품, 월유품	조유품 월유품	十一答共聖行問 十二答三光問	
9	15 云何未發心 而名爲菩薩	월유품	三十四問	二答十二問	
10	17 云何於大衆 猶如閻浮金 無能說其過	보살품			
11	18 云何處濁世 不污如蓮華 云何處煩惱 煩惱不能染				
12	19 如醫療衆病 不爲病所污 生死大海中 云何作船師				
13	20 云何捨生死 如蛇脫皮 云何觀三寶 猶如天意樹				
14	21 三乘若無性 云何而得說 猶如樂未生 云何名受樂				
15	22 云何諸菩薩 而得不壞衆 云何爲生盲 而作眼目導				
16	23 云何示多頭 唯願大仙說 云何說法者 27 增長如月初				
17	28 云何復示現 究竟於涅槃 云何勇進者 示人天魔道				대중소문품
18	29 云何知法性 而受於法樂				대중소문품
19	31 云何諸菩薩 遠離一切病 云何爲衆生 演說於祕密		현병품	三答七問	
20	32 云何說畢竟 及與不畢竟	성행품			
21	33 如其斷疑網 云何不定說 云何而得近 最勝無上道	성행품			
22	我今請如來 爲諸菩薩故 願爲說甚深 微妙諸行等	사자후보살품 가섭보살품	請答		
23	一切諸法中 悉有安樂性 唯願大仙尊 爲我分別說				
24	衆生大依止 兩足尊妙藥 今欲問諸陰 而我無智慧 精進諸菩薩 亦復不能知 如是等甚深 諸佛之境界				

〈표 5〉~〈표 7〉은 『열반경』 「장수품」 계송과 관련된 『집해』의 주석가들의 과문을 제시한 것이다.

과문에 앞서 먼저 계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대반열반경소』에서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학자들마다 계송의 구분(分偈)과 질문의 수(問數)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²⁸⁾ 分偈에 대하여, 하서도량은 앞의 19계송은 問, 뒤의 4계송은 講答이라고 하였고, 다른 학자는 앞의 21계송은 問, 뒤의 2계송은 自謙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학자는 모든 계송이 問이라고 하였다. 問數에 대하여, 양무제는 32問이라고 하였고, 하서도량은 34問이라고 하였으며, 靈味寺 寶亮, 冶城의 素, 莊嚴寺 僧旻도 하서의 견해를 따랐다. 中寺의 法安은 35問이라고 하였고, 開善寺 智藏은 36問이라고 하였으며, 光宅寺 法雲은 37問이라고 하였다.

각각의 질문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因起), 다시 말해 무엇에 대해 논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개선사 지장이나 靈根寺 壽正의 경우에는 「장수품」의 계송이 「순타품」·「애탄품」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으나, 흥황사 법랑은 계송이 「순타품」과 같은 가까운 품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王宮出離에서 시작하여 雙樹涅槃에서 마치는 석가모니 一代의 교화의 教門에 대해 논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서도량은 계송이 과거·현재·미래의 三世와 관련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처음 1계송(1계송)은 부처의 因果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부처의 修因·得果에 대해 설하므로 과거를 가리킨다. 다음의 1계송(2계송)은 지금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근기에 따라서 경전을 설하므로 현재를 가리킨다. 그 다음의 17계송(3-19계송)은 의미는 삼세에 모두 통하지만 위의 두 계송이 과거·현재에 속하므로 이 부분은 미래를 가리킨다. 그 다음의 4계송(20-23계송)은 앞의 세 가지 내용에 답해줄 것을 청한다. 그 가운데 처음 1계송(20계송)은 과거의 법문을 답해줄 것을 청하고, 다음의 1계송(21계송)은 현재의 법문을 답해줄 것을 청하며, 그 다음의 2계송(22-23계송)은 미래의 법문을 답해줄 것을 청한다.

그런데 「장수품」 계송을 과문 형식에 도입한 이들은 『집해』의 주석가들뿐만이 아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식은 하서도랑에게서도 발견

28) 『大般涅槃經疏』(大正藏38, 76中-77下).

되며, 지원(智圓)의 『열반경치정소과(涅槃經治定疏科)』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하서도량의 問-品 대비는 장안(章安)의 『大般涅槃經疏』卷第七에 소개된 내용²⁹⁾을 참고한 것이다. 지원의 『열반경치정소과』는 장안의 『대반열반경소』를 모본으로 삼아 疏에 대한 과문만을 표시한 것인데, 여기에 나타난 「장수품」 계송의 34問에 대응하는 『열반경』 각품의 배당³⁰⁾은 하서도량의 과문에 나타난 問-品 배당과 일치한다. 그리고 도량의 과문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랑의 과문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므로, 도량-법랑-장안-지원이라는 과문의 계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각 품에 대한 명확한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열반론』 속에서도 「장수품」 계송에 따른 경전해석이라는 형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해석은 15계송 26문까지 이어진다.

『집해』 주석가들 가운데 승량의 경우 각 품의 도입부에서 해당하는 「장수품」 계송을 명시하고 있어 問-品の 대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그런데 승량의 경우를 하서도량과 비교해 보면 승량은 問-品 대비가 「가섭보살품」까지 이어져 대부분의 품을 계송과 연결짓고 있는 반면 하서도량은 계송에 따른 품 대비가 「일체대중소문품」에서 그치고 있다. 대중문품분획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체대중소문품」까지를 『열반경』의 고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수품」의 계송을 『열반경』의 고층까지만 적용하려는 입장과 『열반경』 전체로 확장하여 적용하려는 입장으로 나뉠을 알 수 있다.

VI. 마치는 글

『열반경』의 과문의 형식은 대승경전의 서술형식과 관련이 있다. 『열반경』에 대한 초기의 과문은 「장수품」의 계송에 따라서 형성된 측면이 있다. 이것은 대승경전의 여러 가지 서술형식 가운데 하나로, 인도에서 비롯된 대승경전의 서술형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유가행파의 경전인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은 계송과 산문주석이 결합된 頌+釋 형식을 띄고 있는데, 계송의

29) 『大般涅槃經疏』(大正藏38, 77中-下).

30) 『涅槃經治定疏科』(新纂續藏經36, 79上60-82上35).

내용을 이어지는 산문 속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의 경전구성을 보여준다. 『열반경』 역시 「장수품」의 云何偈를 통해서 가섭보살이 여래에게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한 대답이 각 품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반경』의 이러한 구성은 중국 초기불교 시대의 『열반경』 주석가들의 과문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으며, 『열반경』에 대한 주석가들의 이해의 정도를 알려준다. 경전 초반부의 계송의 질문에 대응하는 각 품을 배열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식의 과문은 후대로 갈수록 경전의 과문이 복잡하고 세밀해짐에 따라서 점차 방대한 과문의 형식 속에 흡수된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高僧傳』, 大正藏50.
- 『大般涅槃經』, 大正藏12.
- 道生, 『妙法蓮花經疏』, 新纂續藏經27.
- 寶亮撰, 『大般涅槃經集解』, 大正藏37.
- 章安, 『大般涅槃經疏』, 大正藏38.
- 智圓, 『涅槃經疏三德指歸』, 新纂續藏經37.
- 智圓, 『涅槃經治定疏科』, 新纂續藏經36.
- 慧遠, 『大般涅槃經義記』, 大正藏37.

2. 단행본류

- 김호성, 『불교해석학연구』, 민족사, 2009
- 하유진, 『대반열반경집해 여래성품 역주』, 씨아이알, 2013
- 菅野博史, 「광택사 범운의 법화경관」,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 민족사, 2014
- _____, 『法華義記』, 大藏出版, 1996
- 大竹晋, 「涅槃論解題」, 新國譯大藏經·釋經論部18, 『法華經論·無量壽經論 他』, 大藏出版, 2011
- 島地大等, 「涅槃經開題」, 國譯大藏經·經部八, 『大般涅槃經』, 國民文庫刊行會, 1918
- 塚本啓祥, 「大般涅槃經解題」, 新國譯大藏經·涅槃部1, 『大般涅槃經』(南本)I, 大藏出版, 2008
- 布施浩岳, 『涅槃宗之研究』後篇, 國書刊行會, 1973
- 下田正弘, 『涅槃經の研究』, 春秋社, 1997

3. 논문류

- 王頌, 「대낮처럼 자명한 듯한 은폐: 종파 문제의 재고찰(昭如白日的晦蔽者: 重议宗派问题)」, 『제6회국제학술대회자료집: 종파불교 성립기의 중국불교 사상』,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3
- 이인혜, 「한역논서 번역방법에 관한 소고」, 『대장경의 세계』, 동국역경원, 1999
- 조은수, 「동아시아 불교의 과문 전통과 그 의의」,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불교의 문헌해석학과 과문의 전통』, 불교학연구회, 2014
- _____, 「불교의 경전 주해 전통과 그 방법론적 특징」, 『철학사상』26, 2007
- 하유진, 「도생의 법화경관」, 『불교학보』67집, 2014
- 伊吹敦, 「慧可と涅槃論」(上)-(下), 『東洋學研究』37-38, 2000-2001
- 青木孝彰, 「經典解釋法における科文の成立について」, 『天台學報』15, 1973
- _____, 「六朝における經疏分科法についての一考察」, 『印度學佛教學研究』21-2, 1973
- 坂本廣博, 「涅槃經疏成立に關する一視點-道朗 法朗をめぐつて-」, 『印度學佛教學研究』19-2, 1971
- _____, 「涅槃經集解所立の科文について」, 『天台學報』12, 1970
- 平井俊榮, 「三論學派における涅槃研究の濫觴」, 『印度學佛教學研究』19-2, 1971

A Study on the Textual Organization 科文 of the *Nirvāṇa Sūtra* 涅槃經 within the *Dabanniepanjingjijie* 大般涅槃經集解

HA, Eu-gene
HK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Buddhist Studies at Guemgang Univ.

Textual organization means to break a sutra or treatise down into smaller sections for exegesis and analysis. It is also a trademark of traditional East Asian Buddhist commentarial work. The resultant analyses of a text can usually be schematized into a large, roots-to-branches type of chart. The three largest general divisions of a sutra according to commentarial analysis are the preface 序分, the main teaching 正宗分, and the dissemination section 流通分, with each of these being broken down to various levels of sections and subsections. It is thought that this practice originated in China during the period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courts(南北朝, 420–589), from the time of Dao'an 道安.

After its introduction into China, the *Nirvāṇa Sūtra* was the focus of much exegetical attention, and commentary and analysis of this sutra formed one of the major focal points of Chinese Buddhist doctrinal development in this period; the tradition eventually spoke of this activity as the Nirvāṇa school. The most significant primary source for this exegetical activity during the first century after the text's translation is the *Dabanniepanjingjijie* 大般涅槃經集解, compiled in 509 by Baoliang 寶亮 in the Liang 梁 dynasty. This text excerpts the comments of a number of masters on the text, including the prefaces by ten : Emperor Wu of Liang 梁武帝, Daosheng 道生, Sengliang 僧亮, Tanji 曇濟, Sengzong 僧宗, Baoliang himself, Zhixiu 智秀, Fazhi 法智, Faan 法安 and Tanzhun 曇准, and comments by other masters such as Huilang 慧朗, Tan'ai 曇愛, Tanqian 曇懺, Mingjun 明駿, Daohui 道慧, Falian 法蓮 and Jiaoyi 敬遺. Through the textual organization of *Nirvāṇa Sūtra* in their commentaries, they

differentiated their own doctrinal positions from others. Through the vigorous and complex practice of such exegetical works, they were also able to establish their own unique scholarly world.

Keywords

textual organization, *Nirvāṇa Sūtra*, the period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courts, *Dabanniepanjingjijie*, Nirvāṇa school.

2014년 10월 16일 투고

2014년 11월 29일 심사완료

2014년 12월 15일 게재확정

